
팬데믹 시기의 이주: 불평등의 새롭고 오래된 형태

히오콘다 에레라

에과도르 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원(FLACSO) 사회학과 교수

원제와 출처: Gioconda Herrera, “Migraciones en pandemia: nuevas y viejas formas de desigualdad”, *Nueva Sociedad*, No. 293, mayo-junio de 2021, pp. 106-116.

핵심어: COVID-19, 불평등, 이주,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이주 파노라마는 지난 5년 동안 이주자의 증가와 이주 현상의 유형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전자와 관련해 5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인의 탈출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례 없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남아메리카로의 이주, 특히 안데스 국가로의 이주는 역사적으로 인구 유입이 없었던 소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물론 멕시코인의 미국 이민이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시기에도 중앙아메리카 시민들, 특히 온두라스 사람들은 북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또한,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 아이티에서 대륙 전체로 이동하듯이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흐름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2020년 라틴아메리카에 1,190만 명의 이민자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4,000만 명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이주의 특성을 보면, 경제적 요소에 더해 사회적 폭력, 치안 불안, 공공 서비스 붕괴,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력감과 가까운 미래 앞의 절망감 같은 요인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티, 베네수엘라, 온두라스는 인구 재생산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정치적 요인이 얹혀 있어 이들은 강제 이주에 가까운 구조적 과정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최근 몇 년 동안 가시화된 사안으로 더 많은 관심을 쏠아야 하는 점은 멕시코와 미국 같은 대륙의 북쪽 국가뿐 아니라, 보통 브라질 혹은 칠레 같은 남쪽 국가로도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가 장기간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통행이 생활로 변한 이런 긴 여행을 하는 세 상징적 인구는 전 대륙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아이티인, 미국으로 건너갈 수 없어 멕시코에 장기간 체류하는 중앙아메리카인, 그리고 베네수엘라인이다.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데스 도시를 거쳐 이동하는 그들이 사회 적응이라는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반드시 최종 목적지 일 필요가 없는 장소에 정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¹⁾ 이런 긴 통행 기간은 새로운 역학, 즉 한 국가를 떠나 특정 목적지에 정착하는 단선적 과정으로서의 이주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개념을 깨뜨린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학 관계는 한편으로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남아메리카 지역을 특징짓는 이주 흐름 속에서, 개방적인 이주 정책 의제와 자유로운 순환 이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듯한 혼란스러운 정치 환경에서 발생한다. 여러 국

1) G. Herrera y Gabriela Cabezas Gálvez: 'Ecuador: de la recepción a la disuasión, Políticas frente a la población venezolana y experiencia migratoria 2015-2018' en Luciana Gandini, Fernando Lozano Ascencio y Victoria Prieto (coords.): *Crisis y migración de población venezolana. Entre la desprotección y seguridad jurídica en ciudades latinoamericanas*, UNAM, Ciudad de México, 2020.

가에서 국가 안보 및 주권에 대한 국가주의적 관점을 국정 폐쇄라는 탈국가적 집행에 접목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생겨나는 이주 통제라는 국가 간 프로젝트와 매우 관련이 깊다. 이것들은 역으로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 미국의 이민 정책의 의제를 지배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동은 2014년 이후부터 이 지역을 강타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이민자들의 정착 및 경유는 취약한 노동 시장, 증가하는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 차별의 사회적 환경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의 대유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재생산의 불안정에 영향을 받은 이주 인구의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그런데 불평등의 다른 분열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배제로 드러나는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타난다. 첫 번째 분열은 계속 이주하는 사람들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동성/불안정성은 이주 인구의 삶의 전략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며 인류학자 비아오 씨앙(Biao Xiang)이 위험과 개인 안전 사이의 간극이라고 명명한 현상을 드러낸다.²⁾ 여기에 두 번째 차별화 요소가 추가되는데, 이는 감염된 이민자를 파악하는 일과 관련해 외국인 혐오의 새로운 징후가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 공동체의 합법적인 구성원으로 보는 사람들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는 이민자 송금에 미친 영향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들의 송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한번 국가의 부재 앞에서 출신국 가족들이 겪는 위기 상황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은 2020년 두 지역 연구 그룹이 활발히 진행한 전염병

2) Biao Xiang y Ninna Nyberg Sørensen: 'Shock Mobilities: Long Term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Lock-Down', informe de políticas,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13/8/2020.

영향에 대한 증거 생성 및 관찰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는 아메리카 대륙의 국제 ‘이주 및 실향에 관한 비교 분석’ 그룹으로, 전염병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대응을 조사하는 다양한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두 번째는 ‘아메리카의 (비)이동성’ 그룹으로, 2020년 동안 이주 인구의 상황을 지리적으로 파악하고 대륙 전체에 걸쳐 드러난 인권 침해 과정에 대해 의미있는 경고를 담은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³⁾

불평등의 악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특히 베네수엘라 및 중앙아메리카 인구와 관련된 최근 이주 과정을 조사하는 일련의 연구가 이 지역에서 나왔다. 문헌목록은 네 가지 공통된 내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비공식 경제 부분에 대다수 들어간 이 새로운 이주 인구가 경제 유입 시 불안정한 조건을 지니며,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그들의 문화적 자본과 고용 유형 사이에 큰 격차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과밀화되기 쉬운 이주민 거주 주택이 처한 어려운 여건을 드러낸다. 셋째, 이들이 정규직에 접근하는 데 존재하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이주 인구를 수용하는 측의 외국인 혐오 반응 증가를 보여준다.⁴⁾ 이 네 가지 요인의 조합은 국내 인구에

3) 카미나르 그룹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 출신의 12명의 학자로 구성되어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caminaramericas.org>. ‘아메리카의 (비)이동성’은 솔레다드 알바레스(Soledad Álvarez)와 울라 베르그(Ulla Berg)가 조직했으며 캐나다, 미국,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 출신의 30명 이상의 학자들이 합류하였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inmovilidadamericas.org>.

4) Julieta Bengochea et al.: ‘Covid-19 y población migrante y refugiada. Análisis de las respuestas político-institucionales en ciudades’ en Felipe Vera y Verónica Adler (eds.): *Inmigrando. Fortalecer ciudades destino* vol. 2, bid, Buenos Aires, en prensa.

비해 이민자 인구에 불평등한 영향을 주는 조건이 되면서 특히 전염병 앞에서 이주민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ECLAC에 따르면 특히 이주 인구는 2014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기 침체와 일자리 파괴에 영향을 받았다.⁵⁾ 또한 이 보고서는 이주자와 내국민 간의 빈곤 발생률의 중요한 차이를 강조한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와 같은 국가에서 이민자들은 내국민에 비해 상대적 빈곤 수준이 높다. 페루와 에콰도르의 경우, 세계은행도 비슷한 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이주민 인구가 내국민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더 불안정한 부문을 차지하고, 이는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된 국가일수록 그렇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 이어 베네수엘라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페루의 경우, 2018년 12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페루인이 72.5%에 이른 반면, 베네수엘라인은 88.5%에 달했다. 또한 이민자 인구는 페루 인구보다 수입이 35% 적다.⁶⁾ 엔포베(ENPOVE) 조사에 따르면 페루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인구의 대다수는 비공식적 일자리(계약이나 노동 혜택 없이)에 배치돼 소규모 회사(1명에서 10명 사이)에서 일한다. 또한 응답자의 약 50%가 국적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콰도르의 경우, 이주 인구의 거의 60%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84%만이 합의된 급여를 받고 있다.⁷⁾ 또한 이주민은 에콰도르인보다 주당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월 평균 급여는 더 낮다.

5) Cepal: 《The Impact of covid-19: An Opportunity to Reaffirm the Central Role of Migrant's Human Rights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forme Covid No. 32, 13/11/2020.

6) Martha Guerrero Ble, Izza Leghtas y Jimmy Graham: 《From Displacement to Development: How Peru Can Turn Venezuelan Displacement into a Development Opportunity》, Refugees International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20, p. 51.

7) Banco Mundial: *Retos y oportunidades de la migración venezolana en Ecuador*, Banco Mundial, Washington, dc, 2020, p. 26.

연구에 따르면,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에서 이주 인구 역시 공식적 일자리에 ‘비공식적으로’ 삽입되지만, 여기서 특정 노동 기준을 충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⁸⁾

이주민과 내국민 사이의 현저한 불평등의 시나리오에서 이주민이 전염병의 발발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거리 영업이나 대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과잉 대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들은 일반화된 격리로 인해 생계 수단을 상실하게 되었다. 노점상은 금지되거나 처벌받았다. 유급 가사 노동 및 돌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이주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모든 영역, 판매상, 유흥업 및 식당업이 마비되었다.⁹⁾ 2014년 이후 경제 침체와 함께 찾아온 노동의 불안정은 봉쇄와 함께 심화되었고,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주 인구에서 급격한 빈곤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 불안정성은 그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은 ‘아메리카의 (비)운동성’ 그룹이 “필수적이지만 일회성” 노동이라고 부른 일을 맡아왔다. 이 연구 그룹은 팬데믹 기간 동안 라틴아메리카 이주 노동자의 손에 미국의 식량 생산이 달려 있고, 남아메리카에서는 소위 ‘필수 직업’ 관련된 수많은 활동을 이민 인구가 수행한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가정 배달음식 서비스는 모든 라틴아메리카 도시에서 증가했다.

주택과 관련하여 카미나르(Caminar) 그룹은 공동 주택 및 캠프(예: 브라질의 호라이마(Roraima) 지역)에서 드러나는 과밀화가 어떻게 이주 인구에게 특히 전염되기 쉬운 공간을 만드는 지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여러 도시에서 제기된 이

8) G. Herrera y G. Cabezas Gálvez: ob. cit.

9) Cepal: ob. cit.

주 가족의 퇴거 및 퇴거 지역에 대한 고발 사항이 있었다.¹⁰⁾

또한 격리로 인해 진행 중에 있던 이주 인구의 합법화 및 망명 신청 처리 과정이 마비되었고, 국경은 폐쇄되거나 일부 경우 심지어 군사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많은 수의 비합법적 이주민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고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하게 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칠레, 에콰도르, 페루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비자를 요구했고, 멕시코 및 기타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요청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안전한 제3국’이라는 범주를 수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¹¹⁾ 따라서 국경 폐쇄는 이미 지역 내 국경 통제 체제를 수립해 온 현 추세와 남아메리카 이민 정책을 점진적으로 식민화해 온 억제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¹²⁾ 또한 국경 폐쇄로 인해 많은 수의 이주민이 여러 차단된 국경 지역에서 인도적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들의 건강이 위협에 놓일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비합법적 이주가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외국인 혐오증이 증가하고 있다. 수많은 연구는 보건 및 교육 시스템의 제도적 인종차별 현상을 보고했다.¹³⁾ 또한 이주 인구를 내국민 고용에 대한 위협으로 낙인찍는 과정, 즉 이들을 저임금, 높은

10) J. Bengochea et al.: ob. cit.

11) L. Gandini, F. Lozano Ascencio y V. Prieto (coords.): ob. cit.

12) Eduardo E. Domenech: «Las políticas de migración en Sudamérica: elementos para el análisis crítico del control migratorio y fronterizo» en *Terceiro Milênio. Revista Crítica de Sociologia e Política* vol. 8 No. 1, 1-6/2017; G. Herrera y G. Cabezas: ob. cit.

13) María Emilia Tijoux e Iván Trujillo: «Racialización, ficción, animalización» en M.E. Tijoux (ed.): *Racismo en Chile: la piel como marca de la inmigración*, Editorial Universitaria, Santiago de Chile, 2016; Nanette Liberona Concha y Miguel Ángel Mansilla: «Pacientes ilegítimos. Acceso a la salud de inmigrantes indocumentados en Chile» en *Salud Colectiva* vol. 13 No. 3, 2017.

세금의 부담이나 불안정의 상승 원인으로 간주하는 현상을 기록했다.¹⁴⁾ 팬데믹은 이러한 외국인 혐오 감정을 악화시켰으며, 이와 함께 가시화되는 추가 요소는 미래에 연구될 필요가 있다.¹⁵⁾ 바로 이주민 인구를 전염병으로 잘못 식별하는 것이다. 그 증거로는 페루와 에콰도르 국경을 군사화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민자의 통행을 금지한 것을 들 수 있다.

요컨대, 대유행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주거와 노동의 유형, 유용한 법적 지위가 노동, 건강, 교육과 같은 기본권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주 인구의 생존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외국인 혐오증이 증가하는데, 이후 확인할 수 있듯이, 팬데믹 대응을 위해 이주민 인구를 배제하는 경향을 지닌 민족주의적 정책을 펼친 국가에서 이는 가속화된다.

불평등의 새로운 분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염병이 가져온 예기치 않은 현상과 결과, 그리고 이민자 인구의 불평등 악화와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급격한 변화를 가졌고 이와 관계된 서로 다른 이동성의 현상이 생겨났다.¹⁶⁾ 이를 고찰하기 위해 충격 모빌리티(shock mobilities) 개념을 중심으로 씨앙(Xiang)과 니베르크 쇠렌센(Nyberg Sørensen)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이 저자들에 기대면 충격 모빌리티는 다양한 움직임의 연결 또

14) Oxfam: ‘‘Sí, pero no aquí’. Percepciones de xenofobia y discriminación hacia migrantes de Venezuela en Colombia, Ecuador y Perú, informe de investigación, 2019.

15) 에콰도르 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원(FLACSO)의 타니아 보니아(Tania Bonilla)의 사회학 박사 학위 논문 중 진행 중인 연구가 있다.

16) 이런 현상들을 카미나르 그룹이 “비이동성 상태의 이동성”이라고 명명했다. J. Bengochea et al.: *ob. cit.*

는 모빌리티의 집합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것은 국내외 이주자가 그들의 공동체와 출신국으로 귀환하거나, 혹은 지속적인 이동이 필요한 직업에 이주자가 집중되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확인된 다양한 흐름을 포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가 대륙의 이주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영향 중 하나는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한 국경 제한 및 폐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다. 팬데믹 처음 몇 달 동안 고지대에 있는 마을로 이주한 페루의 리마, 에콰도르의 과야킬 주민들처럼 국내 이주자들이 대도시를 떠나 고향 마을과 공동체로 돌아왔다. 볼리비아 이민자들 역시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을 넘어 고향 도시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직업과 생계 수단의 상실, 주택 상실 또는 코로나의 확산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장 충격적인 일은 아마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페루, 에콰도르, 특히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 본국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생존 수단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 이민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정책의 부재 및 차별이 증가하는 과정에 직면하여 발생한 현상이다. 교통수단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 귀환은 종종 도보로 이루어지며 국경의 군사화, 비합법적 이동 및 약천후라는 위험에 직면한다. 귀국 움직임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과 안전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가상적 프레임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경지대나 공원, 광장 등의 공공장소를 이동 시 인파로 인한 감염 및 두려움도 관계된다.

모든 도시에서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비아오 씨앙이 대체 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음식을 먹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일부 근로자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는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위험 대 개인 안전의 개념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재구성됨을 드러낸다. 이미 언급했듯이 디지털 플랫폼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우버이츠(Uber Eats), 글로보(Glovo), 라빠(Rappi) 및 카비파이(Cabify)와 같은 초국적 기업은 지난 5년 동안 실질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도시에 진출했으며 많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주 노동력에 의존하였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지만 이것이 반드시 직원 수입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았다.¹⁷⁾ 게다가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건 안전 조치 없이 감염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오랜 시간 동안 길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런 노동자들은 사회 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민자들의 경우,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대체 이동성은 위험 노출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반영하지만, 자율성, 이동의 자유, 기업이 정신에 대한 담론으로 덮이고 만다.¹⁸⁾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는 송금액이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으로 간 이주자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송금액이 증가했다는 점이다.¹⁹⁾ 마누엘 오로스코(Manuel Orozco)에 따르면 미국에서 라틴아메리카로의 가족 송금액은 1억 1,400만 달러로서 전체 송금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구가 많은 에콰도르의 경우, 송금액이 33억 3,800만 달러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인 2007년을 훨씬 웃돌았다.²⁰⁾

17) Carolina Salazar Daza y Kruskaya Hidalgo Cordero: 《La aplicación te precariza, Experiencias de personas repartidoras y conductoras en Ecuador》 en C. Salazar Carolina y K. Hidalgo (eds.): *Precarización laboral en plataformas digitales. Una mirada desde América Latina*, Fundación Friedrich Ebert (fes), Quito, 2021; Luis Beccaria, Elva López Mourelo, Raúl Mercer y Pablo Vinocur: 《Delivery en pandemia: el trabajo en las plataformas digitales de reparto en Argentina》, nota técnica, OIT, 12/2020.

18) C. Salazar y K. Hidalgo: ob. cit.

19) Cepal: ob. cit.

20) 《Las remesas a Ecuador batieron récord en 2020 pese a la pandemia》 en *Agencia EFE*, 1/4/2021.

이는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들이 담당하는 최전선 및 ‘필수’ 노동의 위치에 대해 앞서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전염병 초기에 이런 일자리 수요가 감소했지만 곧 회복되었다. 한편, 이주민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보냈고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지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역 내 송금에서,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송금이 상당히 감소하여 인구의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어려운 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²¹⁾

간단히 말해서, ‘비이동성 상태에서 이동성’이라는 다양한 조합은 생존 및 건강 측면에서 이주자 인구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외국인 혐오감으로 인해 위협과 개인 안전 사이의 축에서 이민자와 국민을 다르게 위치시키는 새로운 불평등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송금을 통해 이민자를 가족과 연결하는 초국가적 경제 유대와 같은 움직임은 기존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위기 시기에 이민자의 행동 능력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종결하며

팬데믹은 계급, 인종 또는 젠더 불평등의 맥락만으로는 읽히지 않는 새롭고 낯은 조합의 이동성 패턴을 재구성했다. 비이동성 상태의 이동성은 이주 조건 자체가 라틴아메리카의 빈곤 인구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의 다양한 맥락 내에 속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 조건은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악화시키는 차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위협과 전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주거와 재택근무라는 개인적 안전이 보장된 사람들을 구분 짓는,

21) Manuel Orozco y Jessica Spanswick: ‘Pese a la pandemia, remesas siguen llegando 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y preparan terreno para reactivación’ en *Portal Findev*, 23/3/2021.

팬데믹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차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차이는 필수적이지만 처분 가능한 근로자, 즉, 최전선에 있지만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는 역설에 의해 강화된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성찰을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비교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역적 이주를 살펴보고 이주자의 순환 흐름을 따라가면서, 국경을 이들 앞에 놓인 한계가 아닌 투쟁과 저항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²²⁾ 이러한 지역적, 비교적 관점에서 현재 이 지역을 특징짓는 이주의 특수성을 포함해야 한다. 위기의 자리를 떠나 또 다른 위기로 옮겨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주자와 비이주자가 불안정과 배제를 공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종 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은 역사적으로 권력의 식민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사회처럼 고도로 위계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비합법성의 조건이 다른 배제의 축과 연결된 불평등의 차원으로 바뀌는가? 이 모든 질문은 팬데믹 속 이동 과정을 살펴 보면서 생겨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에 대해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은아 옮김

22) Sandro Mezzadra y Brett Neilson: *Border as Method or the Multiplication of Labor*, Duke up, 2013.